

한라포커스 바닥친 임용시험 신뢰도... 회복 방안 찾아야

교차 확인에도 실수 못 잡아... 검증 한계

중등교사 합격자 두차례 반복하는 초유사태 발생
 임용 준비생 “공정성 확보 계기 삼아야” 한목소리
 도교육청, 이달 중 임용시험 개선 대책 방향 발표

제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합격자가 두 차례나 바뀐 초유의 사태는 단순 업무 실수를 넘어 성격적리 검증 부실로 빚어진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임용시험의 한 단계인 실기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 잡을 내부 검증 시스템 미흡=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를 발표할 뒤,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쯤, 그리고 6일 만인 13일 오후 체육교사 합격자를 두 번이나 바꿔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업무 실수'를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일로 교육청 내부의 임용시험 관리에 대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처음 합격자가 바뀌기 전까지 도교육청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응시자들이 체육 교과의 실기평가 점수가 빠진 것 같으며 확인을 요청해서야, 도교육청은 전산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수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또 다른 실수는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체육 교과의 실기평가가 5개 항목 중에 1개 성적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역시 사전에 걸리지 않았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는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적 관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실기평가 등 합산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는 탓에 교차 검증을 해도 문제를 찾아내기 어렵다.

▶예비 교사들 “임용시험 공정성 강화해야”=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로서는 이번 일이 납일 같지 않다. 4년째 임용시험을 준

비하는 A(31)씨는 “이번 일이 현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고, 도내 대학 체육교육과의 한 학생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참에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응시자들이 2차 시험에서 치르는 실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C(28)씨는 “과학은 실험의 성공 여부처럼 눈에 보이는 평가 지표가 있지만 실기 교과는 채점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채점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체육 교사로 선발된 한 합격자는 “각 종목에 맞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중등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2차 시험에서 체육교사 5명을 평가위원으로 두고 응시

자 12명의 모든 종목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 이같은 구조에선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도교육청은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달 안에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용시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감사위와 의논을 거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강다혜 기자



집재만한 파도 휘몰아치는 바닷가. 꽃샘추위가 시작된 16일 제주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 홍수리 해안가에 이상급기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다.

제주 꽃샘추위 '기승'... 눈·강풍 주의

제주 전 지역 강풍주의보

제주지방에 꽃샘추위가 엄습하면서 눈과 강풍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8일 아침까지 해안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산지에는 최대 30cm의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 아침(오전 9시 기준)까지 제주지역 예상강수량은 5~30mm가 되겠으며, 같은 기간 예상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30cm, 제주도(산지 제외) 5~10cm가 되겠다.

특히 17일 중산간 지역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 해안지역에도 대설특보가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으로 떨어진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영하권의 체감온도를 보일 것이다.

17일 아침 기온은 2~3℃(전일 5~7℃, 평년 3~5℃), 낮 기온은 4~6℃(전일 6~9℃, 평년 10~12℃)가 되겠으며, 18일은 아침 기온 1~4℃(평년 3~5℃), 낮 기온은 7~10℃(평년 10~12℃)가 되겠다. 김현석기자

■ 4·15총선 58일 앞으로...

정치권 요동 속 제주선거판도 지각변동

도내 예비후보 26명... 일부 후보 정당 이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제주지역 총선판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4·15 총선 예비후보자는 총 26명으로 8.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통합으로 예비후보들과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진영이 추진해온 통합 작업이 마무리돼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기반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에서 17일까지 세 당이 합당하고 신당 당명을 '민주통합당'(가칭)으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기에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신당 '국민의당'도 다시 깃발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번 제주지역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세정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9개 정당과 무소속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시갑 선거구=현역인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한 제주시갑 선거구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전략공천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동작을 등 8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제주는 일단 제외시켰다. 추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당 박희수(58)·문운택(52)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어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에는 자유한국당 고경실(63)·구자현(51)·김영진(52)예비후보와 지난 5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혁신통합추진위가 추진하는

통합신당(미래통합당) 참여를 선언한 장성철 출마 예정자가 분선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와 20일 예정된 면접을 통해서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양길현(63) 예비후보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아닌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정의당 고병수(55)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용철(53)·임효준(47)·현용식(54)예비후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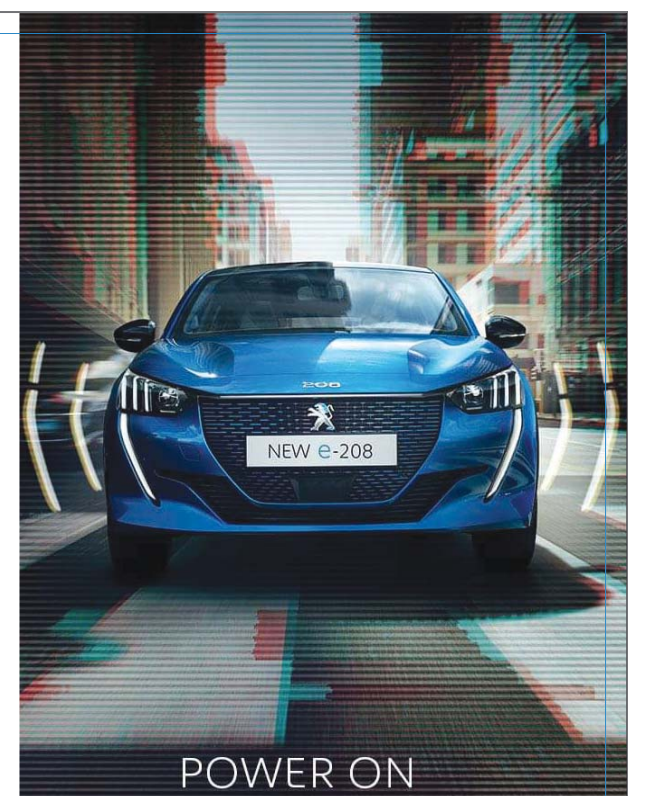
▶제주시를 선거구=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시를 선거구를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선을 노리는 오영훈(51)예비후보와 부승찬(49)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관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 부상일(48)·김호(51)·강승연(65)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다.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와 향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간의 차이를 경우 전략 공천가능성이 있다. 민중당 강은주(50)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서금석(72)·전윤영(47) 예비후보, 한나라당에서는 차주홍(62)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서귀포 선거구=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의원(51)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으나 공식선거후보자추진 관리위원회는 16일 서귀포를 포함한 전국 87개 선거구에 대해 17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허용진(61)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야권 통합을 외친 허용진 예비후보와 무소속 강경필(56)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변수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석주(72)예비후보, 국민세정당 박예수(67)예비후보, 무소속 임형문(58)예비후보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대모기자

www.bonbonauto.co.kr

새봄, 프랑스 감성이 깃든

고품격 푸조/시트로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POWER ON

[푸조 전기차 Launching - 사전계약 접수중]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증분 전시장
 영업딜러 모집(2명)

푸조 공식딜러

(주)봉봉오토모빌

· 증분전시장 739-0533(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 제주전시장 743-5001(제주시 오일장중길 100)
 · 서비스센터 743-5002

· 근무지: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증분전시장
 · 서귀포 증분 거주자 환영
 · 접수 및 채용안내: jhdo21@naver.com
 010-9379-7701